

평화로운 금요일, 학교가 끝난 후 집에 간다. 집에 택배가 와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도착했다. 상자는 두개가 와있다. '두근두근' 한 상자는 겁나게 큰 상자 하나와 영어로 웨비스 삼이라고 써있는 상자, 나는 그걸 보고 춤을 췄다. 먼저 겁나게 큰 상자를 현관으로 옮긴 후, 웨비스 삼 상자를 안고 "우와악!!"을 외치며 집에 등장했다. 예상하지 못한 손님(오빠)가 온라인 클래스를 보다가 놀라신 도리미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가볍게 무시하고, 흥얼거리며 식탁 의자에 착석하고 휴대폰을 켜다.



영상을 시작하고, 조심히 칼로 상자를 부숴다. 상자를 처리한 후 정말 소중한 앨범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울 뻔했다. 일주일동안 겁나게 찾던 보람이 너무나 잘 느껴졌다. 오빠는 물어보듯 말했다: "그 앨범 방탄 신곡 앨범임?" 나는 대답했다 "응"

그리고 앨범에 붙어있는 봉지를 칼로 살살 끊었다. 제거하면서 나는 오빠에게 자랑했다. "좋겠지? 좋겠지?" 오빠는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으며, 흐느끼를 떨며, 개뽤를 했다. 포도집이 나오면 "이떡해, 오빠 나를 가져요TT"

CD가 나오면 "호영영 우어웁TT" 포도카드가 나오면 "이렇게 안 사랑해" 정말

개판이었다. 포스터가 집이식 이어서 펼 쳤을 때 지국이 남아서 속상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사랑해요 ♡ 오빠들!! 앨범 또 사고싶다

신나고, 행복한 개뽤기
→ 두근두근 ♡